

2. 성서와 성서언어

지난 줄거리. 종교(으뜸 가르침)의 핵심: 1) 나는 누구인가(정체성); 2) 어떻게 살아야 하나(행동윤리). 이것을 성서를 통해 전한다.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“책의 종교”라 부름=> 경전을 가지고 있다는 말. 고로 성서에 대한 이해는 기본이며 중요=> 규범(law)인가 모범(model)인가. 이에 대한 이해는 다음 주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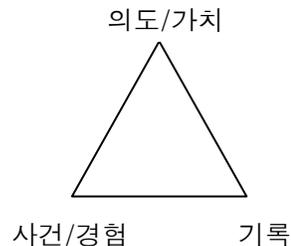
A. 성서언어 (용어정리의 “성서언어 연구” 참조)

1. 문자적 이해—literal. 서술적/진위적(眞僞的).
2. 은유적 이해—metaphorical/symbolic
 - 말은 전달 수단. 말/언어 이면에 담긴 뜻이 있다.
 - 문제점. 말이 변한다. 어떤 말은 해석이 어렵다 (문화의 차이=>고스톱과 카드놀이).
 - 끝내준다. 본래 의미=> 끝을 내다, 마침표를 찍다 (수업을 일찍 끝내준다); 다른 의미=> 오늘 성경공부 끝내준다.
 - 노래 (샤방샤방) 가사.얼굴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아주 그냥 죽여줘요 (‘죽이다’의 의미) => 죽여준다, 끝내준다: 둘 다 매우 좋다는 의미
 - 화행(話行, speech-act)/수행(遂行, perform)적 언어. 말/언어가 행동을 수반/요구. 예) 배고파=> 밥달라는 말. 시끄러워=> 문닫으라는 말. 춥다=>들어오라는 말.
 - 종교언어 (혹은 일상언어). 예) “하느님/하나님의 뜻” (모르겠다는 말); “기도해 보겠습니다” (No! 아니오란 말).
 - 결국 언어는 뜻풀이를 전제로 함=> 표현된 언어 이면의 체험/경험을 되집고, 그것을 통해 말하려는 뜻/의도를 되집어 보아야.

B. 언어의 3대 요소: 어떻게, 무엇을, 왜

1. 어떻게 기록(표현)
 - 언어(말과 글)는 전달수단.
 - 언어는 틀(system) 속에서 작용. 고로 표현방식이 당시의 언어/문화/관습에 매여 있다.
2. 무엇을(내용): 사건과 경험
3. 왜 기록되었나? 의도/뜻/가치

모든 문서, 문학작품에는 이를 가능케 한 어떤 사건/실마리가 있으며, 아울러 이 (작품)을 통해 전하려는 의도(가치)가 있다. 독자의 으뜸된 임무는 저자의 의도/뜻을 살피는 일이다.



결론. 언어/표현의 궁극적 대상은 의도.

- 초점: 무엇이 그런 표현을 낳았나? 그 체험/경험이 무엇인가? 그것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의미는?
- 시공을 떠나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의도(가치). 해석의 대상=> 이것을 다르게 (내 말로) 표현할 수 있어야.